



도,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

“인공지능으로 산업·행정·일상 혁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제주 AX 대전환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 전환(AI)을 통해 제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일상을 혁신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제주시 첨단로 카카오 스페이스 3층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 인공지능 대전환의 방향과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을 산업과 행정, 도민 생활 전반에 접목하는 미래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위성곤 지사를 비롯해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송해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역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준 제주도의회 부의장, 남철기 과

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송석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주요 핵심기업 관계자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AX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이루는 AI 미래기회자치도 ▷제주의 바람과 햇빛에 인공지능을 더한 기후경제수도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AI 생활자치도 등 네 가지 변화를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AX로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주제로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하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전략을 설명하고 제주에서 추

진할 수 있는 에너지·관광·안전 등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등 제주의 재생에너지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건물 등 다양한 저장자원을 연결해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ESS처럼 작동하는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위성곤 지사는 이날 하 부위원장에게 '제주 AX 대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AI 허브 제주' 조성, 4대 과학기술원-제주 연합캠퍼스 종합계획 수립, '제주권 AX 대전환'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주요 국비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오소범기자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 유도 지원책 시급”

도의회 농수축위서 멘토링 사업 저조한 집행률 지적
고령화 심각… 생계 기반 마련 등 실질적 지원 주문

제주의 지속가능한 해녀문화를 위해 신규 해녀 가입을 유도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위원회(위원장 강충룡) 제1차 회의에서 신규해녀 양성 멘토링 운영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신규 해녀의 어촌계 가입을 위한 유인책 마련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신규해녀 양성 멘토링 운영지원사업의 2025년도 예산 집행률이 31.5%에 불과한 점을 들며 “해녀들의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규 해녀를 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뒤 제주에서 해녀를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신규 해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기존 해녀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호형 의원

임정은 의원

“신규 해녀를 양성하고 어촌계에 가입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신규 해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도 관련 사업에서 가점을 주고 있다”며 “행정시와 협의해 신규 해녀를 가입시키는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도 해녀의 고령화와 신규 해녀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주에는 103개 어촌계가 있고 해녀와 연관된 사업

도 많지만 현재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고령 해녀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신규 해녀를 양성한 뒤 이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4년간 통계를 보면 1000명 가량의 해녀가 그만두고 있는 반면 신규 해녀는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고령 해녀가 빠져나가는 속도에 비해 신규 해녀 유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녀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103개 어촌계에 젊은 해녀들이 들어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녀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 비해 제주도의 지원과 노력이 부족하다”며 “내년도에는 국제해녀포럼을 만들어 해녀문화 보전과 신규 해녀 육성, 소득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의원님과 잘 의논하면서 준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을 검토·평가할 도민 배심위원단이 출범했다.

제주도 제공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 ‘도민 검증’ 돌입

도, 도민배심원단 50명 위촉
3차례 회의 통해 계획 보완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의 공약실천계획을 검토·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공약실천계획 수립 도민 배심원단’이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도청 탐라홀에서 배심원단 50명을 위촉하고 운영방식에 대한 사전교육과 함께 분임을 구성했다.

도민배심원단은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안을 살펴보고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평가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배심원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운영을 위탁해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도 누리집을 통해 참여 의향을 확인한 뒤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50명을 구성했다.

도민배심원단은 이날부터 10월 3

일까지 모두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실천계획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제주도는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10월 중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하고 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69만 도민을 대신해 공약이 제대로 설계됐는지,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지, 도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달라”고 말했다.

위성력기자 yswit968@ihalla.com

제2공항 건설 촉구 집회 ‘도의원 참여’ 두고 공방
정의당·진보당 비판 성명… 범도민추진위는 “지지”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 도내 진보정당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반면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은 “제2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도의원들의 목소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연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대회’에는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을 비롯 강동우·한동훈·오경남 의원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제2공항 찬성 집회에 직접 참가해 사업 강행을 외친 현직 제주도원들을 규탄

한다”며 “특히 향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중립성을 내팽개친 양홍식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당장 그 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번 사태는 민주당 제주도당이 제2공항이라는 거대한 현안 앞에서 끊임없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당론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라며 “모호한 태도로 도민사회의 갈등을 방치하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제2공항에 대한 당론을 하루속히 확정해 도민사회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은 제2공항 찬성 집회에 참석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해당 집회를 공동주최한 단체인 제2공항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제2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제주도정의 갈등조정협의회 추진에 문제를 제기한 지역구 도의원들의 목소리를 지지한다”고 했다. 추진위는 “제2공항은 정부의 입지 발표 이후 11년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낙후된 동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혔고 주민 간 갈등을 깊어졌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공고 제2026-02호

제주관광공사 사장 공개모집 공고

관광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경제를 실현하는 도민의 공기업,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주 관광 발전을 이끌어 갈 **사장**을 모집합니다.

1. 공모 직위 및 인원 사장 1명

2. 임 기 임명일로부터 3년

3. 자격요건 지방공기업법 제 60조의 결격사유 및 제주관광공사 정관 3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다음 각 호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사장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4. 경영·경제 및 관광산업에 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5.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4. 제출서류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결격사유확인서 등

5. 접수개요 1) 접수기간: 2026. 09. 10. ~ 2026. 09. 29. 18시 까지
2)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6. 문 의 제주관광공사 경영지원팀 064-740-6021~6022

2026년 9월 10일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사항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ijto.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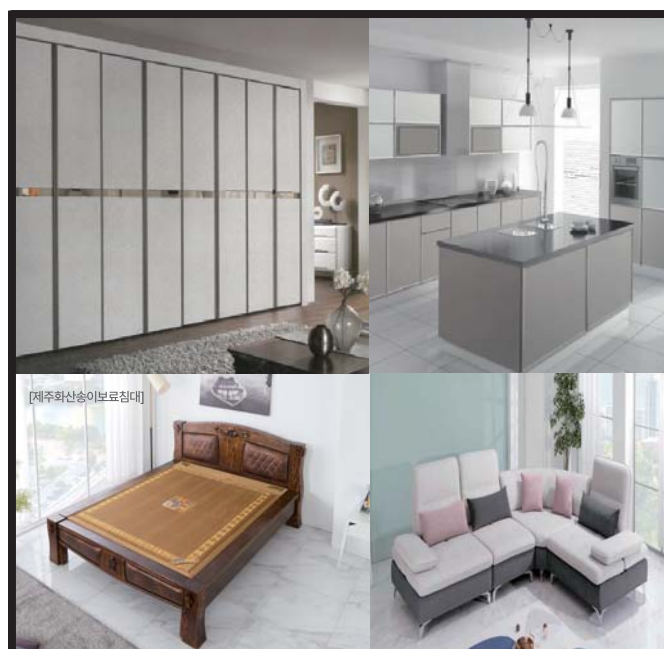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발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맛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 758-0065